

ERA 1위 지킨다...류현진, 29일 정규시즌 '유종의 미'

샌프란시스코 3연전 마지막날 등판...“우승 확정 후라 짧게 던질 듯”

올시즌 13승5패 평균자책점 2.41 1위...한시즌 최다승 타이도 도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의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 일정이 확정됐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현지 취재진을 상대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치르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정규시즌 마지막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매체 오렌지 카운티레지스터의 빌 플링킷 기자에 따르면 워커 블러, 류현진, 리치 힐이 샌프란시스코와 3연전에 순서대로 등판한다. 따라서 류현진은

29일 마지막 등판을 갖는다.

29일 경기는 오전 5시5분에 시작된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는 로건 웨이 될 전망이다. 웨이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신인으로 7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5.61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이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한 경기를 책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우승을 확정된 다저스가 포스트시즌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 플링킷 기자 역시 “블러와 류현진은 디비전시리즈를 고려해 비교적 짧게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시즌 13승5패 평균자책점 2.41을 기록 중인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1위 수성에 도전한다. 2위 뉴욕 메츠의 제이콥 디그롬이 2.51로 류현진의 뒤를 쫓는 상황이다.

디그롬이 다음 등판에서 수치를 끌어내린다면 류현진의 마지막 등판 결과에 따라 1위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류현진으로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안고 마운드에 올라야 한다.

자신의 한 시즌 최다승 타이 기록 14승(2013, 2014년)에도 도전한다. 또한 4%이닝 이상을 던지면

180이닝을 채우는 의미도 있다. 2013년 첫 시즌에 기록한 192이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80이닝도 선발투수의 꾸준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치다.

최근 기세는 좋다. 지난 15일 뉴욕 메츠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완투로 부진의 사슬을 끊어낸 뒤 2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7이닝 3실점 호투로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다. 콜로라도전에서는 메이저리그 데뷔 7년만에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좋은 투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2경기에 등판해 1승 무패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했다.

통산 샌프란시스코전 성적도 17경기 6승6패 평균자책점 2.79로 나쁜편이 아니다. 경기가 열리는 샌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는 통산 5승3패 평균자책점 2.88을 기록했다. 이날 등판을 마친 뒤 류현진은 디비전시리즈를 준비한다.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

전은 10월4일부터 다저스 홈 구장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류현진은 5일 후 2차전 등판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1

PGA투어 “임성재, 세이프웨이 오픈 우승 후보”



임성재(21·CJ대한통운)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세이프웨이 오픈(총상금 660만달러) 우승 후보로 꼽혔다.

임성재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리조트 앤드 스파 노스(파72·7166야드)에서 열리는 세이프웨이 오픈에 출전한다. 세이프웨이 오픈은 임성재가 신인왕에 올랐던 2019-19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였다. 당시 임성재는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결국 신인왕에도 오를 수 있었다.

2번째 시즌에 돌입한 임성재는 지난 주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3월 아널드파

머 인비테이셔널에서 기록한 공동 3위를 넘어서는 개인 최고 성적이다.

새로운 시즌에도 임성재의 활약이 이어지자 첫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PGA 투어는 세이프웨이 오픈 파워랭킹에서 임성재를 2위에 올려놓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우승 후보에도 꼽혔다.

PGA 투어 홈페이지 스태프 라이터 카메론 모팰은 “임성재는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한 명이다. 작년 세이프웨이 오픈에서도 선두권을 맴돌았고 지난 주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임성재의 우승은 곧 이뤄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우승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

회”라고 전망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매니저 맷 코크란도 임성재를 우승 후보로 꼽았다. 그는 “최근 6개 대회에서 임성재는 준우승, 공동 6위, 공동 11위 등의 성적을 올렸고 공동 38위가 최악의 성적이었다”며 “신인왕 임성재의 첫 우승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6위 저스틴 토마스(미국), 7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 등 상위 랭커들도 출전해 우승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PGA 투어 통산 10승을 기록 중인 토마스는 이번 대회에서 또 다른 우승 후보 중 한명으로 꼽힌다. 토마스는 이달 초 흑색종(피부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한다.

파워랭킹 1위에 오른 토마스는 지난 8월 플레이오프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최근 컨디션이 좋다. 또한 세이프웨이 오픈에서는 2015년 공동 3위, 2016년 공동 8위 등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뉴스1

KBO 포스트시즌 5개 팀 확정...1~3위 아직 안갯속



(왼쪽부터)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 김태형 두산 베어스 감독, 장정식 키움 히어로즈 감독.

2019 신한은행 마야카 KBO리그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5개 팀이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순위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NC 다이노스가 24일 두산 베어스와 시즌 15차전에서 7-7로 비기면서 5위 자리를 확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같은날 2위 두산은 KT 위즈에 달미를 잡힌 선두 SK 와이번스를 1경기 차로 추격했고, 3위 키움 히어로즈는 KIA 타이거즈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SK의 충격이 크다. 3-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7 역전패를 당하면서 6연패 늪에 빠졌다.

먼저 4.5위 가능성이다. 이날 LG는 삼성 라이온즈에 2-4로 졌다. LG가 승리하거나 NC가 패했다면 LG의 4위가 확정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LG(7승1무6패)의 4위 매직넘버는 1이다. LG가 남은 5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거나 NC(72승2무6패)가 남은 5경기에서 1패만 더해 LG의 4위가 결정된다. 4위 LG와 5위 NC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는 것이 사실상 결정됐다

고 볼 수 있다.

1~3위가 문제다. SK가 6연패에 빠지고 두산이 무승부를 추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3위 키움의 우승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1위 SK(84승1무54패)와 2위 두산(83승1무55패)의 승차는 1경기, 5경기씩을 남겨놓은 두 팀이 동률을 이룰 경우, 상대전적에서 9승7패로 앞서는 두산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키움의 3위 확정을 전제로, SK는 남은 5경기에서 두산과 같은 승수만 거둬도 우승할 수 있다. 두산은 SK보다 무조건 1승을 더해야 한다.

아주 희박하지만 키움(84승1무57패)까지 세 팀이 동률을 이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키움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고 SK가 2승3패, 두산이 3승2패를 하는 시나리오다. 이러면 세 팀은 나란히 86승1무57패를 기록한다.

세 팀 이상이 동률을 이룰 경우 해당 팀 간 상대전적을 합산해서 따진다. 이 경우 정규시즌 우승은 키움에게 돌아간다. 키움은 두산과 9승7패, SK와 8승8패를 기록해 합이 17승15패다. 두산은 16승16패로 2위, SK는 15승17패로 3위가 된다.

임대정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